새로운 분위기의 9홀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27홀 개장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도심 한복판 '스노보드 쇼' 13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계스키연맹(FIS) '스노보드 빅에어(Big Air) 월드컵' 예선 경기에 출전한 한 선수가 도심 빌딩숲을 배경으로 힘차게 점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 좋은 남편, 아버지 되겠다"

사생활 파문 우즈 골프 무기한 중단

의문의 교통사고에 이어 잇단 추문이 불거져 곤욕을 치른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34·미국)가 "골프를 무기한 쉬겠다"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2일(이하 한국시간) 밝혔다.

우즈는 "고민한 결과 골프를 쉬기로 결정했다. 언제까지 골프를 쉴 것인지는 정하지 않았다"며 "더 좋은 남편, 아버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기한 중단(indefinite break)'이라는 표현을 쓴 우즈는 그러나 완전한 은퇴를 밝혔다기보다 잠시 공백을 두겠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읽힌다.

"나의 잘못된 행동이 많은 사람, 특히 내 아내와 아이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사죄의 뜻을 밝힌다"라며 글을 시작한 우즈는 "내가 한 일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우즈는 지난달 28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인근 아일워스의 자택 앞 도로에서 현지 시각 새벽 2시25분에 가로수와 소화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이후 끊임없는 추문에 시달려왔다. 그와 잠자리를 함께했다는 여성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 등장했고 그에 따라 아내 엘린과 이혼설까지 퍼지며 이미지에 막대한 손상을 입었다.

사고가 일어난 뒤 우즈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간간이 입장을 밝혔을 뿐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이달 초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타이거 우즈 재단이 주최한 셰브론월드챌린지에도 일정을 변경해 참가하지 않았다. 우즈는 "팬들과 우즈 재단의 좋은 분들, 사업 파트너,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동료 선수들에게 많은 이해를 구한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사생활을 존중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마무리했다. 2004년 10월 결혼한 우즈와 엘린은 2007년 6월에 딸 샘 알렉시스, 올해 2월에 아들 찰리 액셀을 얻었다. /연합뉴스

김원섭 2년연속 골든글러브 후보에 그쳤지만…

내년엔 황금장갑 낀다

2년연속 3할打… 테이블 세터 활약 만점

만성 간염 투병에도 "풀시즌 소화" 자신

'골든글러브 만큼 빛났던 후보 김원섭'

KIA 타이거즈가 11일 열린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4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2009시즌을 성대하게 마감했다. 외야수 부문에 이름을 올렸던 김원섭은 비록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지만 팀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골든글러브 초대장을 받으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원섭에게 올 시즌은 기적같은 한 해였다. 김원섭이 군산에서 쏘아올렸던 역전 끝내기 만루홈런은 KIA의 가을을 바꿨다. 초구를 강타해 만들어낸 만루홈런으로 KIA는 9연승을 확정지었고 11연승까지 내달렸다. SK가 시즌 마지막까지 17연승을 기록하며 한 게임차로 KIA를 바짝 뒤쫓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김원섭의 이 한방은 시즌 우승과 한국시리즈 우승의 흐름을 바꾼 결정타였다.

한국시리즈 7차전 승리에도 김원섭이 있었다. 김원섭은 4-5로 뒤지던 7회말 1사 1·2루에서 2루타를 때려내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나지완의 짜릿한 끝내기 홈런을 위한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올 시즌 김원섭은 2년 연속 3할(2009시즌 0.301)을 때리며 테이블 세터로 만점 활약을 했다. 통산 홈런이 3개에 불과했던 김원섭은 시즌 중반 만성간염으로 한달 가량 타석에 서지 못했지만 공격적인 스윙으로 잠재된 장타율을 끌어올려 8개의 홈런을 기록했다. 파워와 빠른 발로 만든 3루타는 9개로 두산 김현수를 3개차로 따돌리고 부문 1위를 차지했다. 또한 2년 동안 실책 하나 없이 100%의 수비율을 자랑하며 당당히 골든글러브 후보로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어머니의 병환 때문에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김원섭은 올해 처음으로 시상식장을 찾았다. 큰 기대 없이 찾은 시상식에서 골든글러브 만큼 값진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돌아왔다.

김원섭은 "시상대에 오르는 수상자들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욕심도 났다"며 "내년 시즌 부상 없이 풀타임을 소화하면 충분히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골든글러브에 도전해보겠다"고 밝혔다.

김원섭은 테이블 세터이자 핵심 외야수로 공·수·주 어떤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다. 김원섭이 이중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주루다. 한 루라도 더 진루해서 공격의 활로를 열어야 하는 만큼 도루에 욕심이 난다. 100% 수비율을 위해 더 부지런하게 뛰기도 한다. 김원섭은 "수비를 할 때 스타트에 신경 쓴다. 투수가 던진 공이 몸쪽으로 나오는지 바깥쪽으로 나오는지 살피고 타자들의 타이밍을 보면서 반박자 빨리 움직이려 한다"고 말했다. 욕심 많은 김원섭의 변수는 체력이다. 만성간염을 앓고 있기 때문에 도루 하나 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장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병일 코치가 장담하는 20홈런 달성 여부도 체력에 달렸다. 그만큼 풀시즌은 김원섭이 간절하게 바라는 또 다른 목표다.

황금장갑을 들어올리는 꿈을 위한 김원섭의 2010년 풀시즌 도전이 시작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호랑이들 다시찾은 '황금시대'

1997년 이후 암흑기…최근 10년 고작 5명

올핸 우승 영광에 골든글러브 4명 배출

KIA 타이거즈가 2009시즌 가장 많은 골든글러브 수상자를 배출하며 '황금시대'를 다시 열었다.

KIA는 전신 해태시절 골든글러브 시상식의 단골 손님이었다. 1982년 차영화·김준환을 시작으로 1997년 이대진·홍현우·이종범·박재용까지 1980·90년대에만 46개의 황금장갑을 쓸어담았다. 전체 골든글러브중 30% 가량을 호랑이들이 차지한 셈이다.

한대화·김성한·선동렬·이종범은 무려 6번이나 시상대에 올랐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3루수 골든글러브를 내주지 않았던 한대화는 LG로 이적한 1993년과 다음해인 1994년 두 차례 더 시상대에 등장하며 양준혁(삼성)과 함께 최다 수상(8번)의 기록을 세웠다.

이종범은 입단 첫해인 1993년 골든글러브를 차지하며 '야구천재'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했다. 유격수 부문에서 4차례 수상을 한 이종범은 2002년과 2003년 연속 외야수 부문 수상자가 되면서 내·외야를 동시에 석권했다.

5차례 수상에 빛나는 이순철도 내·외야를 점령한 선수 중 한 명이다. 타이거즈의 유일한 신인왕인 이순철은 1986년 신인왕과 골든글러브 트로피를 함께 들어올렸다. 이해 3루수로 골든글러브의 영예를 안았던 이순철은 이후 외야를 호령하며 4차례 더 황금장갑을 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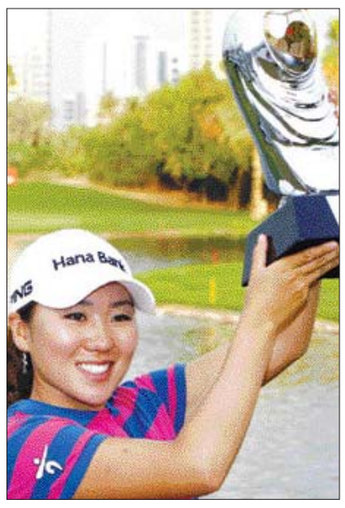
하지만 1997년 이후 KIA의 황금시대가 암흑기에 접어들었다. 한해 6명의 선수를 동시에 무대에 올리기도 했던 KIA는 최근 10년 동안 5개의 황금장갑을 챙기는데 그쳤다.

KIA는 올해 4개의 골든글러브를 들어올리며 영광재현에 성공했다. 로페즈·김상훈·최희섭·김상현은 처음으로 '황금장갑'을 품에 안으며 타이거즈의 새 역사를 썼다. 2009 시즌 MVP 김상현은 한대화-홍현우로 계보가 이어지며 10개의 황금장갑을 선물한 3루수 부문에서 골든글러브를 차치해 황금밭의 명맥을 계승했다.

/김여울기자 wool@

김인경 두바이 마스터스 우승

위성미 단독 2위



김인경(21·하나금융)과 재미교포 위성미(20·나이키골프)가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오메가 두바이 레이디스 마스터스(총상금 50만유로) 우승과 준우승을 나눠 가졌다.

김인경은 12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에미레이츠 골프장(파72·6천412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최종합계 18언더파 270타를 기록해 우승 상금 7만5천유로의 주인공이 됐다.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모두 25개 대회에 나왔던 김인경은 6월 LPGA 스테이트 팜 클래식 우승, 5월 미켈롭 울트라오픈 준우승 등의 성적을 냈던 선수다. LPGA 투어에서 개인 통산 2승을 거뒀고 유럽투어에서는 이번이 첫 우승이다.

위성미도 깔끔한 시즌 마무리에 성공했다. 11월 LPGA 투어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에서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우승컵을 품에 안은 위성미는 최종합계 15언더파 273타를 기록, 단독 2위로 대회를 마쳤다.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이 끝난 바로 다음 주 LPGA 투어 챔피언십에 출전했다가 발목 부상으로 1라운드 후 기권했던 위성미는 3주 정도 쉬고 나온 이번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해 2010년 시즌 전망을 밝게 했다. 양희영(20·삼성전자)은 9언더파 279타로 공동 9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